

남성 독거노인 자립생활 돕는다

생명보험재단, 장성에 '생명숲100세힐링센터' 개소 일상생활·사회성·건강·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제공

전남지역에서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3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장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남성 홀몸어르신들의 신체·정서·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성 홀몸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력 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올 계획이다.

'장성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요리교실·정리수납 등 일상생활자립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음악교실 등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실버태권도, 폼피구운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태블릿PC기반 대면·비대면 융합 인지훈련, 회상요법, 정서지원 등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생명보험재단과 장성군은 '일상생활 자립'이라는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역량을 강화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성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약 30%로 전남 지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재단은 장성군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문을 열고 남성 홀몸 어르신 지원에 나선다.

생명보험재단 송기정 상임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장성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통해 전남 지역에서도 여성에 비해 사회관계 활동과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데도 소극적인 남성 독거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재단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양질의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장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고령화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보다 2.6배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은 2배 이상, 자살률은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23.8%로 일명 '초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이 20%)' 지역이다.

전남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23.8%로 일명 '초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이 20%)' 지역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회의에서 감염병 검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연구원은 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병원체 유행 감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아 지역 뿐 아니라 국가 감염병 발생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힘을 보탠

겨울철 미세먼지 심한 이유는 "난방 화석연료 탓"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세먼지와 강수 분석 연구

국내 연구진이 겨울 하늘에 다른 계절보다도 이상하리만큼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밝혀냈다.

3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질환경연구본부 최한나 박사 연구팀은 서울 남부지역 강수 자료와 미세먼지 포집 자료를 바탕으로 산성비가 온 날과 오지 않은 날의 빗물을 비교·분석한 결과, 산성비가 내리는 날의 금속 성분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알루미늄·아연·철 등 금속 성분 측정값이 일반 빗물보다 더 높게 관측됐다. 연구진은 눈·비에 더 많은 미세먼지 인자가 달라붙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일반 빗물의 알루미늄 성분 검출 중앙값이 1당 10.4mol(mol)일 때 산성 비에서는 13.0mol이었다. 철 성분도 1.06몰에서 2.02몰로 많아졌다. 아연도 0.82몰에서 2.53몰로 3배가량 급증했다.

한 탄소 산화물이 금속 성분과 섞여 미세먼지 입자 형태로 대기에 배출된 것이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디젤 차량 배기가스보다 더 무거운 질소 동위원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 겨울철 기온이 내려갈수록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져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박사는 "추운 겨울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이 많으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이 미세먼지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빗물 샘플에서 화석연료가 탈 때 주로 발생하는 입자들이 많이 발견된 것도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23일 지질환경분야 권위자인 '환경 과학과 오염 연구'(IF: 4.223)에 '대기 중 에어로졸과 강수 중 미세먼지 입자의 물리, 화학, 동위원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사진에 담은 '일상, 그리고 행복'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사진 수업을 배운 지역 어르신들이 최근 '일상,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찍은 사진전을 열었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기후위기사대 '미래세대'가 나섰다

'광산청소년기후행동축제' 정크놀이터·용기나눔 등 진행

기후위기사대에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들어가는 기후행동 축제가 열렸다.

지난 30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광산청소년기후행동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광산구청소년수련관과 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21개의 청소년동아리들이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 진행됐다.

사전활동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지구 지키기 실천기록이 진행돼 최소 7일 이상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기록했다. 축제에서는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정크놀이터, 종이팩 분리수거체험, 박스미로, 용기나눔, 비건부스 등 기후행동 체험부스, 생방송 라이브 부스, 동아리 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힘찬 출발신호와 함께 참가 청소년들이 첨단지역을 돌며 기후행동 퍼레이드도 열렸다.

체험마당에서는 '탄소제로' 화폐를 사용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채식, 메일 휴지통 비우기 등의 실천에 따라 '탄소제로' 화폐가 참가 청소년들에게 지급됐다. '탄소제로' 화폐는 각종 체험마당 이용시 사용되는 등 행사 곳곳에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송정민 광산청소년기후행동축제기획단장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광산청소년기후행동축제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는 '미래세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야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검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30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회의에서 감염병 검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연구원은 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병원체 유행 감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아 지역 뿐 아니라 국가 감염병 발생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힘을 보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1년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회의에서 감염병 검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연구원은 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등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병원체 유행 감시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아 지역 뿐 아니라 국가 감염병 발생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힘을 보탠

신재생 에너지 전환 '광주햇빛발전협의회' 발대식

시민들의 힘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이하 광주햇빛발전협의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30일 광주햇빛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광주햇빛발전협의회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이며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반짝반짝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무등에너지협동조합', '나무숲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약 800여명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외에도 에너지전환마을인 '양림전환마을',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전환마을 품앗이'에

서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준비하며 햇빛발전협의회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장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시민발전소의 현황과 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협의회 준비과정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광주햇빛발전협의회는 광주지역에서 시민햇빛발전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소 부지확보, 에너지전환 교육과 홍보, 발전소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육성과정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햇빛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시민발전소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에너지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에너지복지,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소, 시민참여 에너지전환활동에 지원해 지역의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을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